



정부포상·인쇄문화대상 시상식 거행

문화포장에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이사 영예
대통령상엔 노웅선, 국무총리상엔 이우열 사장

대한인쇄문화협회 · 인쇄연합회 · 서울인쇄정보조합 공동주최

2009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세종 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기용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한철희 출판인회의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 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직승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학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김충진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등 귀빈 및 전현직 단체장,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 등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

정석)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문화포장, 노웅선 (주)웅선비즈니스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 이우열 명성칼라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대표이사, 안경만 경인정보문화사 대표, 홍영상 새한정밀인쇄사 대표, 강성덕 세진인쇄 대표, 박명숙 툰커뮤니케이션 대표, 임성준 (주)청광문화인쇄 대표이사, 윤병업 형제문화사 대표, 최호경 현대미술 대표, 전병열 거성문화인쇄사 대표, 장승준 정우디피씨 대표, 정철희 (주)신아칼라 대표이사, 한홍수 신영에이전시 대표, 이정학 (주)해외문화 대표이사, 김재선 신일기획문화(주) 공장장, 신병탁 정우프린테크 대표, 원중희 청주시 지방행정사무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경영부분, 오성상 신구대그래픽아츠미디어과 교수가 인



1 2009 인쇄문화의 날 수상자들
 2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귀빈들의 모습
 3 정두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명록을 적고 있다
 5 행사장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6 이충원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쇄문화대상 기술부문, 임인호 금속활자장 이수자가 인쇄문화대상 특별부문, 최은철 현대씨엔피(주)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진흥부문 상, 정홍택 출판도시 활판공방 공방장이 직지상, 권정진 (주)성신문화인쇄사 이사 등 16명이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에 이어 귀빈소개 - 국민의례 - 기념사 - 축사 - 정부포상 - 인쇄문화대상 시상 - 자축연(축하떡 절단, 건배제의)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도산위기에 놓이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곳곳하게 인쇄문화산업을 지켜 오고 계신 인쇄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머지않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세계 7대 인쇄강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진흥계획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세계 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친환경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쇄 발전 없이는 그 나라의 문화발전을 기약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쇄문화는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개인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면서 “올해 연구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식문화 산업의 근간인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은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인쇄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우동 회장 기념사



- 1 2009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들
- 2 박제덕 경영부문 수상자
- 3 오성상 기술부문 수상자
- 4 임인호 특별부문 수상자
- 5 최은철 진흥부문 수상자
- 6 정흥택 직지부문 수상자



존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및 인쇄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제21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25회 인쇄문화대상, 직지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쇄문화발전에 헌신하여 영예의 각종 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쇄인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인쇄업계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놓이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인쇄문화산업을 지켜 오고 계신 인쇄인 여러분을 뵈오니 참으로 반갑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우리의 선조들께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탄생시켰고, 역사적 아픔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지난 3월 비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찬란한 인쇄문화를 계승하여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 창달에 선봉이 된다'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14개 항의 핵심사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인력양성 사업과 인쇄 공용서체 개발, 인쇄품질표준화 연구사업, 친환경국제컨퍼런스 개최,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 및 직지 순회전시회,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7대 인쇄강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진흥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인쇄 및 관련 산업을 총 망라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쇄대백과사전 발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인쇄인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는 단연코 인쇄문화가 아닙니까. 따라서 한국의 랜드 마크는 인쇄문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인쇄문화박물관이 반드시 수도권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인쇄문화를 홍보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민족의 위대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7대 인쇄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고 성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도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예의 정부포상과 인쇄문화대상 및 직지상 등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촌 장관 축사



인협회장 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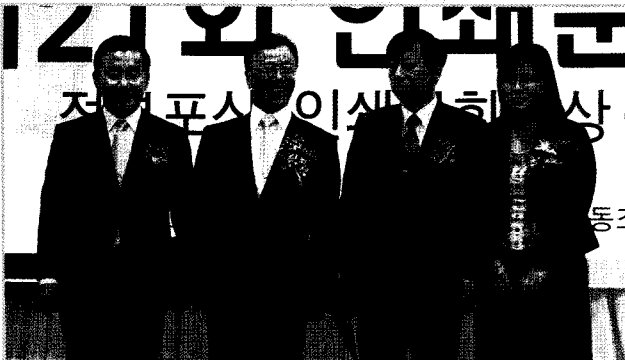
〈프린팅코리아 유공 부문〉

김남태 (예를새주) 대표이사
김원제 언론화 박사
윤주호 (주)한진피앤씨 이사
조가람 인쇄공학 박사

〈모범근로자 부문〉

계정환 한국하이텔베르그(주) 이사
권정진 (주)성신문화인쇄사 관리이사
권형근 (주)동성사 주임

김경만 (주)산조인쇄 팀장
김선태 (주)성전애드컴 영업이사
여동준 법일인쇄 대리
유경옥 삼성아이앤비(주) 과장
이승택 (주)성도GL 과장
장완호 성문인쇄사 차장
전원식 (주)상지피앤아이 팀장
차순욱 정아문화사 사원
차예진 알진PMS(주) 대리



◇ 프린팅코리아 유공부문 수상자



◇ 모범근로자부문 수상자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제21회 인쇄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님을 비롯한 인쇄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인쇄문화발전에 애써 오신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국회 정두언 의원님,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백석기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인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포장 등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비록 이번엔 포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인쇄는 정보와 지식의 축적과 공유의 수단으로서 인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쇄 발전 없이는 그 나라의 문화발전을 기약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쇄문화는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개인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인쇄는 우리문화의 정신적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쇄문화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나라의 정신문화는 더욱 성숙되며,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스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쇄 매체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식과 정보력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지금, 인쇄문화의 발전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그동안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인쇄산업이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2007년에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지원해 오던 국제인쇄전시회 지원뿐만 아니라 인쇄 전문인력 양성, 인쇄서체 개발, 인쇄포럼 개최, 인쇄단지 조성 사업 등도 새롭게 지원 방침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구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쇄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이번 기념식을 준비해 주시고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포상 수상자 - 왼쪽부터 조정석 대표·노웅선 대표·이우열 대표·유인촌 장관



문화포장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

인쇄문화 위상 제고에 이바지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이사는 1967년에 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래 32년째 인쇄업계의 발전에 공헌해 오면서 환경, 생태와 관련된 우수한 과학도서 등 연간 300여종의 책자 160만권 및 3500여종의 카탈로그 등의 인쇄를 통해 인쇄품질 향상 및 인쇄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인쇄단체인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인쇄용지 및 원부자재 원활한 공급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B2B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조 사장은 현재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으로 재임 하면서 인쇄수출전문 인력 및 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인쇄전문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제인쇄학술 포럼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인쇄문화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대통령 표창

노웅선 (주)웅선비지네스 대표이사

특수인쇄기술로 고부가가치 창출

노웅선 (주)웅선비지네스 대표이사는 1969년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국내 최초로 선진국 형 예금통장 특수인쇄 기술을 개발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인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연간 500여종의 색상이 뛰어난 고급인쇄물을 생산하여 인쇄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했으며 전산관련 인쇄기술을 개발하여 인쇄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

이우열 명성칼라 대표

고급 표지 생산 등 인쇄물 고급화 기여

명성칼라 이우열 대표는 지난 1969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화가의 도록 등 연간 300여종의 고급책자 및 카탈로그를 인쇄하면서 자연그대로의 색상 재현을 통해 인쇄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해 왔다.

이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고급책자를 생산하고 종이가 두꺼운 고급표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출판물을 과거에 비해 질적·미적인 감각을 향상시키고 고급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는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인쇄물의 품질고급화에 기여해 왔다. 해마다 500여종의 고급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POD인쇄에 매장 디지털인쇄 시장의 확대를 통해 인쇄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안경만 경인정보문화사 대표

안경만 경인정보문화사 대표는 지난 1970년에 인쇄업계에 투신하여 인쇄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교육 자료를 고품질로 인쇄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인쇄문화 우수성을 알리는 등 인쇄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홍영상 새한정밀인쇄사 대표

홍영상 새한정밀인쇄사 대표는 35년전부터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중국, 베트남 등에 50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구대학등에서 3천여 명에게 인쇄교육을 하는 등 인쇄업계의 후진 양성에 기여해 왔다.



강성덕 세진인쇄 대표

강성덕 세진인쇄 대표는 1968년에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인쇄하기 어려운 사전류 등을 연간 200여종, 100만권의 책자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는 문화비교 도서를 인쇄하는 등 인쇄문화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박명숙 룬커뮤니케이션 대표

박명숙 룬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976년에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인쇄광고물의 이미지합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캐너 및 슬라이드를 통해 재현하는데 성공하는 등 인쇄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임성준 (주)청광문화인쇄 대표이사

임성준 (주)청광문화인쇄 대표는 1985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서울시 산하 4개 구청에서 소식지를 수주하여 연간 720만권 인쇄했으며 전단 인쇄물 600여종을 인쇄하는 등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윤병엽 형제문화사 대표

윤병엽 형제문화사 대표는 1981년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후 연간 100여종, 50만권의 책자를 인쇄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카탈로그 등을 생산해 오면서 인쇄물의 다양화와 인쇄문화의 향상에 기여해 왔다.



최호경 현대미술 대표

최호경 현대미술사 대표는 1979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화장품 박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백옥 생화장품 등 300여종의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 인쇄물의 품질 고급화로 인쇄문화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전 병 열 거성문화인쇄사 대표

전병열 거성문화인쇄사 대표는 1976년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선보이면서 연간 70여종의 고급홍보인쇄물을 기획, 편집, 인쇄해 인쇄문화 향상과 인쇄 기법 다양화에 기여해 왔다.



장 승 준 정우디피씨 대표

장승준 정우디피씨 대표는 1976년 인쇄업계에 투신하여 매년 50여종, 250만부의 교육, 교양도서를 생산하고 '역사적 사진으로 엮는 제주도 사진집'을 출판하는 등 고급 인쇄 및 전문 분야의 인쇄물을 통해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 철 희 (주)신아칼라 대표이사

정철희 (주)신아칼라 대표이사는 1984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고품질의 책표지를 연간 1천여 종 생산하고 있으며 라벨인쇄 풀 뒷 문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쇄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 흥 수 신영에이전시 대표

한홍수 신영에이전시 대표는 1991년 인쇄업계에 투신하여 연간 250여종의 카탈로그 및 20여종, 10만권의 고급책자를 인쇄하고 20여종의 도서를 출판하여 인쇄·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정학 (주)해외문화 대표이사

이정학 (주)해외문화 대표이사는 1976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연간 300여종, 50만권의 의학적서를 생산해 왔으며 패키지 분야에도 진출하여 200여종의 고품질 포장박스를 생산하여 인쇄품질 고급화에 기여해 왔다.



김재선 신일기획문화(주) 공장장

김재선 신일기획문화(주) 공장장은 1977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32년간 생산현장에 종사하면서 인쇄물 생산의 최적의 상태를 체계화 하여 고품질의 인쇄물 생산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신병탁 정우프린테크 대표

신병탁 정우프린테크 대표는 1972년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후 37년간 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오면서 한국관광공사 애니메이션 공모作品集 등 연간 250여종의 고급 카탈로그 등을 생산하여 인쇄물 고급화에 기여해 왔다.



원중희 청주시 지방행정사무관

원중희 청주시 지방행정사무관은 1976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현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세계화와 국내홍보를 통해 한국의 고인쇄문화를 알리고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해 왔다. <신용희씨가 대리수상>